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성도의 지혜 성경: 마태복음 24장 15-28절 (Tag:)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 밭에 있는 자는 걸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9 그 날에는 아이 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20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3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

함도 그러하리라

28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마 24:15-28)

오늘 15절에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는 표현이 나온다. 군이 읽고 깨달으라고 명시한 것을 보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잘못 해석할 우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잘못 알거나, 잘못 가거나, 부주의하거나,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말했을 경우 대부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된다. 만약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영혼에 관한 것이라면? 그는 온 인생을 헛되이 살게 된다. 제일 피해가 심각하다. 하루라도 빨리 진리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15절에 읽고 깨달으라고 써여 있으나 계시록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1:3)

읽을 뿐만 아니라, 듣는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자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는자를 말한다. 해석을 들을 때 깨우침이 강력할 뿐 아니라, 영적 교감이 일어나면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에 시동이 걸리게 된다. 즉, 지키는 힘이 작동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지혜는 실로 스스로 읽고 깨닫는 데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시간은 거룩하며, 성직도 거룩하고, 그곳에 자신의 헌신이 더해지면서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점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15, 16, 19, 20절은 아무래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부분일 것이다.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우리로다

20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네구절은 분명한 지명을 지목하였고, 다급하게 도망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 중에서 마사다 전투에서 끝까지 버티었던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도망하였음.)

그러나 4구절을 제외한 나머지 구절들은 분명히 세상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다. 이 부분에서는 다급하게 어디로 도망해야 한다는 말이 없다. 오히려 마지막 재앙에 임하는 환난은 피하여 도망할 수 없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 다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을 감해주실 것이라고 약속 하셨다.

그 보다는 오히려 거짓선지자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지붕위에서 집안으로 들어가자 말며, 밭에서 성으로 들어가자 말아야 할 것은 마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며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 즉, 사소한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다.

이미 2천년 전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그에 대한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는데 지침이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정조를 잘 보고 지혜롭게 환난을 예비하여 잘 대처할 것, 둘째는 사소한 탐욕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프시케가 중요한가 조에가 중요한가) 셋째는 거짓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 것, 넷째는 상을 받으려는 자들은 더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다.

첫째부터 넷째로 갈수록 더 매력적인 진리들이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은 더 높은 단계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여건과 깊이가 관계가 있다. 자신의 단계가 높다고 자만하는 자는 넘어질진저) -자신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 도망하였고, 어떤 사람은 마사다에서 스스로 의로운 채 죽어갔다. 하나님은 이들의 의로운 죽음을 결코 원하지도 않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지도 않으신다는 점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실수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금 점검하면서 일깨워야 한다. 이미 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오늘 내가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마지막때,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는 징조에 이 일깨움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정말로 일깨우려면? 지금 평상시에 준비해야 한다. 준비하는 성도는 환난을 이길 것이고, 준비를 하지 않거나, 잘못 하거나, 속거나, 지금이 그때라고 우기거나 하는 사람들은 거짓선지자에게 속은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화두는 단연 진정성이다. 목사들의 진정성은 이미 도마에 오른 지 오래다. 타 종교와는 달리 개신교에는 목사들의 진정성을 포장해 주거나 그 허구성을 숨겨줄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스스로 자신의 진정성을 포장하는 목사들도 있는가 보다. 그러니 여러분은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의례적인 신앙생활이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선도가 떨어져 버렸다는 점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랬다. 마사다에서 죽어간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들에게는 4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리적 매너리즘에 빠졌다. 교리에 얽매어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 매너리즘 때문에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선구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못한다. 그렇게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교리에서 들먹인다.

사실은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이다. 그래도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한국교회만큼은 이런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교회는 주일만큼은 열심히 신앙생활에 전념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전도에 힘써야 한다. 그런 자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축원한다. 아멘.

무엇으로 승부할 것인가?

이미 형성된 문화의 편리성과 막힘성

새로 형성될 문화의 위험성과 편리성

세상은 무엇에 의해서 쉬프트 되는가?

어제의 선이 오늘의 악이 될 수 있는가?

문화를 고집하는 것은 지조인가? 아니면 무식인가?

이것을 재빨리 알아차리는 것과 늦게 알아차리는 것의 차이

빨리 알아차렸지만, 아직 알아차리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재치인가?

분위기를 타는 것

진정성으로 승리한 다니엘

진정성이 매달라버린 율법주의를 경고하는 예수님

우리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핵심을 깨우치면서 대처하는 것이 지혜가 되기 때문이다.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전 찬양 인도용

